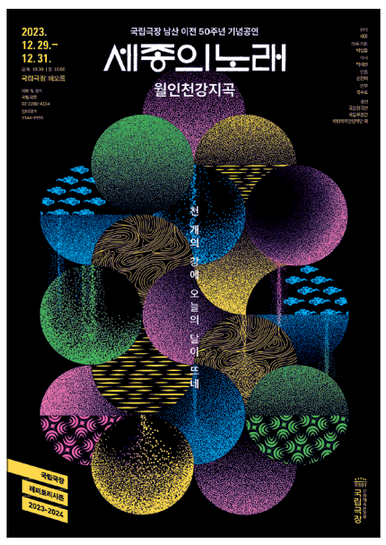
세종이 부른 부처님 일대기, 칸타타로 만난다

국립해오름극장 12월 29일~31일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 공연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이 칸타타로
313명 출연진 참여하는 대형 공연
작곡가 박범훈 "가장 공들인 작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28일 열린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 기자간담회서 작곡과 지휘를 맡은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말은 다양한 클래식 공연들이 펼쳐지기에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즐거운 시즌이다. 하지만, 공연 내용 대부분이 예수를 찬양하는 기독교 찬송가들이 일색이여서 불자들에게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다. 올해 연말에는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대형 공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은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이하 세종의 노래)' 을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세종의 노래' 는 한국 공연예술의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대형 칸타타(교성곡, 다악장 형태의 성악곡)로, 각 분야 최고 거장인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 연출가 손진책, 안무가 국수호가 의기투합한다.

세종이 직접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바탕으로 한 이번 공연에는 3개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 국립무용단 ·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총 313명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2017년 국보로 지정된 〈월인천강지곡〉은 1447년(세종 29년)경에 세종대왕이 지은 찬불가다. 세종대왕은 소헌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석보상절〉을 쓰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은 노래가 〈월인천강지곡〉이다.

'마치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추는 것과 같다' 는 의미를 담은 〈월인천강지곡〉은 석가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불도를 깨우치기까지 등의 일대기를 장장 538장으로 기록한 찬불가로 훈민정음의 음운 법칙, 음절 구성 등이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어 한글 창제의 이념을 잘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처음 금속활자로 간행된 한글 문헌이라는 점에서 초기 국어학과 출판인쇄 역사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은 세종이 쓴 〈월인천강지곡〉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 세종이 부르는 노래로 재구성해 대형 칸타타로 완성했다. 박 원장은 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는 박해진과 오랜 시간에 걸쳐 부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대서사시를 압축한 후, 작사에 맞춰 2년에 걸쳐 곡을 썼다. 이렇게 탄생한 '세종의 노래' 는 독창 · 중창 · 합창과 동서양의 관현악이 결합한 칸타타로, 서곡과 8개 악장으로 구성된다.

초연의 지휘는 작곡가 박 원장이 직접 맡는다. 작품의 극적인 선율을 끌어내 경건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연출가 손진책이 극 공연 못지않은 무대 · 영상 · 조명 · 의상 등을 조화롭게 펼쳐내는 가운데 안무가 국수호가 완성한 다채로운 움직임까지 더해져 통념을 깨는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합쳐진 관현악단 97명을 중심으로 합창단 174명, 창극단 11명, 무용단 31명 등 출연자만 313명에 달하는 초대형 무대가 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칸타타(교성곡)를 포함해 수많은 창작곡을 써왔지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인 작품"이라며 "특히, 가사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랫말이 품은 뜻과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숱한 가사 수정과 편곡 작업을 거쳤다"고 전했다.

박 원장과 노랫말 작업을 함께한 박해진이 작사를 맡아 공연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세존이 태어나 열반에 오르는 과정을 그린 팔상도(八相圖)에서 '도솔래의' 를 '흰 코끼리 타고 오신 세존' 으로, '쌍림열반' 은 '세존, 열반에 들다' 로 풀어쓰는 등 지금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노랫말로 만들었다. 또한,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넣어 작품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국립극장은 " '세종의 노래' 는 군주로서의 외로움과 지아비로서의 지고지순한 순정, 한글이 만백성에게 제대로 전파되길 바라던 마음이 담긴 노래를 통해 '사랑' 과 '화합' 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02)2280-4114

추상화로 표현한 佛法…길상 기운 담다

능허 스님, '대길상 에너지전' 개최
12월 2~22일, 법련사 불일전시관서
오일 페인팅 기법으로 불법 표현해
'옴마니반메훔' 새긴 '시방도' 눈길
"그림에서 카르마 소멸 방법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형상화한 독특한 그림으로 마음의 치유와 명상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시인이자 화가인 능허 스님은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전시관에서 '대길상 에너지전' 을 연다. 전시에는 못을 사용해 서양화 오일 페인팅 기법으로 구현한 작품 40여 점이 공개된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대길상 에너지전' 개막식은 12월 2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산스크리트어와 한문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한 작품과 삼라만상의 우주와 해탈의 경지를 예술적 에너지로 표출한 추상화 등을 선보인다. 특히 전 세계에 불법이 퍼져나가길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동서남북 사방에 '옴마니반메훔' 을 새긴 작품 '사방도' 도 눈여겨볼 만하다.

능허 스님은 출가 전인 16살부터 그림을 그렸다. 독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한 스님은 1982년 출가한 이후에도 손에서 그림을 놓지 않았다. 스님은 출가 이후 곧장 태국, 베트남, 몽골, 티베트 등을 오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려왔다.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은 물론 종교를 떠나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도 일깨웠다.

스님이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된다. 잠까지 줄여가며 작품활동에 매진한 결과 스님은 지금까지 200여 개 작품을 남겼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개인전은 10회, 초대 및 단체전은 30회 이상 참여했다.

11월 28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능허 스님은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지은 카르마를 소멸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그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나에겐 그림이 곧 수행"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한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깨달음에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회가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능허 스님은 향후 목표도 소개했다. 스님은 "그림뿐 아니라 명상의 영역을 소리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소리 명상법을 개발, 시스템화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지에서 평화법회 개최를 계기로 능허 스님과 인연을 맺은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은 "유튜브를 통해 파키스탄인들이 불교 유적을 훼손하는 장면을 봤다.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다. 그즈음 능허 스님을 알게 됐고, 활동과 작품에 관심이 갔다"며 "작품이 너무 좋아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의 그림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시각 장애인용 한국 불교건축 교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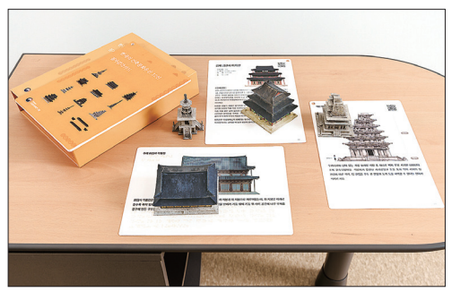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원, 3차원 촉각 모형 만들어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시각장애인들이 한국의 건축 유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보재〈사진〉가 제작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시각장애인이 우리나라 건축문화유산을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촉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건축문화유산 12선 점자 감각카드와 3차원(3D) 촉각모형 교구' 를 제작해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점자감각카드는 '소통24'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개의 불교건축문화유산(목조건축6, 석조건축6)을 대상으로 제작했다. 목조건축으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 석조건축에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제작됐다.

해당 교보재는 건축문화유산의 형태를 알기 쉽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글과 세밀화(일러스트)로 구성됐으며, 물방울 방식의 특수 점자와 점화를 삽입했다. 함께 포함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성우의 음성 설명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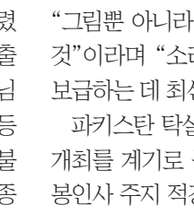


3차원(3D) 촉각모형 교구는 점자감각카드로 제작한 12개의 건축문화유산 중 4개를 선별해 제작하였으며, 150㎜ 내외의 크기로, 한 손으로 형태와 질감을 느낄 수 있어 시각장애인 촉각체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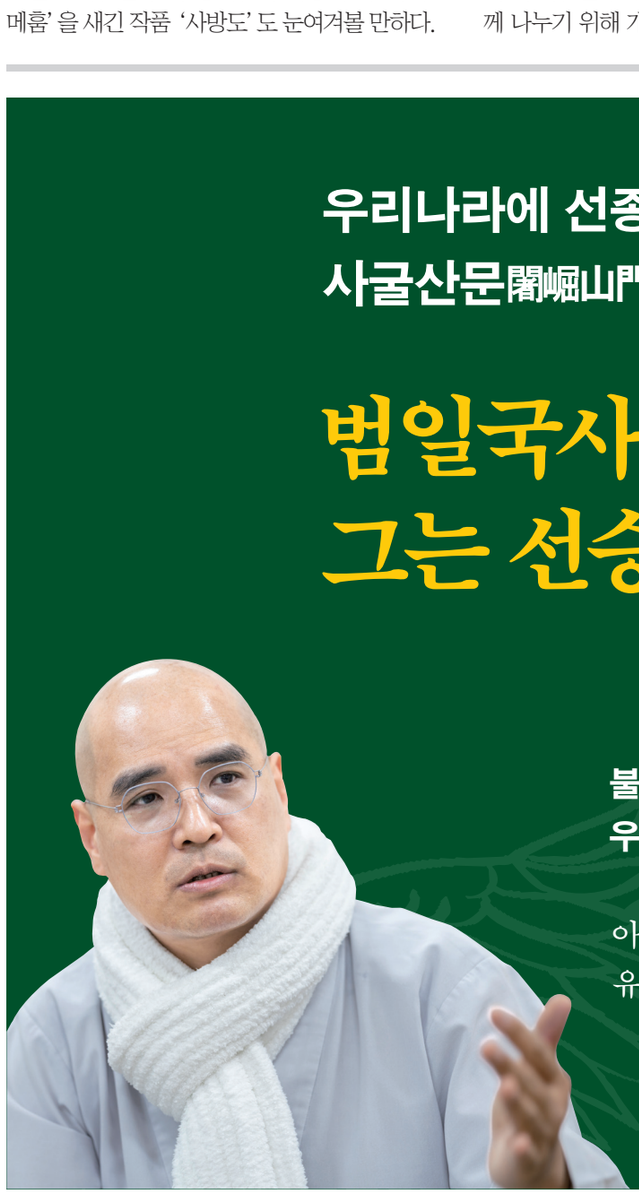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에 제작된 점자감각카드는 오는 12월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포되며, 3차원(3D) 촉각모형 교구는 점자감각카드와 함께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우리나라에 선종禪宗의 뿌리를 심은
사굴산문闍崛山門의 개창자!



범일국사梵日國師
그는 선승禪僧인가, 신神인가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밝히는
우리 불교사, 또 하나의 주요 장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범일국사의 생애를 복원하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강릉단오제의 주신이 된 사연을 밝히다!

추천사

범일국사는 시대를 초월한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입니다. 이분께서 개창하신 사굴산문에 보조지눌과 송광사의 16국사 그리고 나옹혜근과 환암혼수, 무학자초 등의 거목들이 배출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선종사를 관통하는 남상濫觴인 범일국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성파



신이 된
선승,
범일국사

자현 지음 | 544쪽 | 올컬러 | 3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